

六味地黃丸의 制方原則 및 配合原理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金倫顯¹ · 尹暢烈^{1*}

A study on the rules and the principles of the six-drugs mixing forming the prescription of Yukmijihwanghuan (六味地黃丸)

Kim Yoon Hyeon¹, Yoon Chang-Yeol¹

¹Dep.of Academic Researc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versity

The conclusions after studying the rules and the principles of the six-drugs mixing forming the prescription of Yukmijihwanghuan(六味地黃丸) are as follows:

1. Yukmijihwanghuan cares for the three viscera; the liver, the spleen and the kidney and the three entrails; the urinary bladder, the gall bladder, and the stomach and it strengthens them as well. The drug can be used mainly for the cure of the Three Yang Channels of Foot and the Three Yin Channels of Foot.
2. The three drugs of Yukmijihwanghuan; Rehmanniae Radix, Dioscoreae Rhizoma, Corni Fructus altogether has the tonifying effect and the other three; Alismatis Rhizoma, Moutan Cortex, Poria has the purging effect. The first three kinds of drugs tonifies and the last three kinds of drugs purges. While these two groups of drugs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they also balance each other harmoniously increasing the curative effect(remedial[curative] value).
3. Yukmijihwanghuan cools off the lung which is under metal category, helps the spleen, an earth category to be strong. It also adds the Water Qi to the kidney so that it stabilizes the Fire Qi.
4. Yukmijihwanghuan helps the kidney strongly, helps the urine to be excreted well, cools down the Fire Qi and makes dry things wet.
5. Rehmanniae Radix, the principal drug of Yukmijihwanghuan and Corni Fructus, the minister drug of the medicine have a taste of thick and are materially heavy. The two drugs do the descending action that it tonifies Yin Qi and adds Essence of Life. The other ingredients of Yukmijihwanghuan; Moutan Cortex, Poria, Alismatis Rhizoma have effects on lowering the Fire Qi. If Fire Qi descends, then Water Qi ascends. Yukmijihwanghuan has an efficacy of lowering Fire Qi and increasing Water Qi.

key words : Yukmijihwanghuan(六味地黃丸), Fire Qi(火氣), Water Qi(水氣) lowering Fire Qi(降火), increasing Water Qi(升水).

* 교신저자 : 尹暢烈.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번지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yooney@dju.ac.kr. Tel: 042-280-2601.

접수일(2010년 8월25일), 수정일(2010년 11월15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16일)

I. 序 論

六味地黃丸은宋代錢乙이創方한 것이다. 錢乙은金匱要略에 있는 治虛勞腰痛及男子消渴小便多·婦人轉胞不得溺 등을 치료하는 腎氣丸에서 辛溫하여 益火助陽하는 桂枝와 附子를 제거하고 乾熟地을 熟地黃으로 바꾸어서 立方하였다. 藥物은 熟地黃 8錢, 山茱萸·乾山藥各 4錢, 澤瀉·牡丹皮·白茯苓各 3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小兒의 腎怯失音·顛開不合·神不足·目中白睛多·面色晄白 등을 치료한다¹⁾고 하였다. 이후 六味地黃丸은 腎虛症을 치료하는 주방이 되어 응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內科·外科·婦人科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으며 역대 문헌에 기재된 주치증상만 하더라도 100여종에 이르고 있다. 문헌에 기재된 주치증상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發熱·自汗·諸血·痰氣上壅·頭暈目眩·腰痛痿軟·自汗·瘦弱·耳聾·耳鳴·小便·淋秘口渴·失音·憔悴·骨蒸潮熱·咳嗽·遺精·咽燥·齒搖·眼花·消渴·虛煩·淋瀝·足跟痛·精神疲困·口舌瘡裂 등이었다고 한다²⁾.

이처럼 六味地黃丸은 補陰의 神方·益腎之聖藥이 되어 임상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에 비례하여 6가지 약물의 효능과 制方原則 및 配合原理 등에 대하여 수많은 이론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전통을 고수하는 醫家들은 古方의 배합은 많고 적은 것이 합당함을 얻었기에 때문에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어떤 자는 처방 중에 茯苓과 澤瀉 등이 있어 滲利作用이 강하여 보하는 힘이 떨어지므로 이를 빼고 다른 補陰之劑를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여기서 말하는 육미는 처방 중에 酸·苦·甘·辛·鹹·淡의 六味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六味地黃丸이라 한 것이 약의 종류가 여섯 가지라서 육미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이에 저자는 역대 문헌을 통해 六味地黃丸 중의 여섯 가지 약물의 性味·功效를 중심으로 六味사이의 制方原則과·配伍意義 등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六經을 모두 다스린다.

육미환중의 육미약의 성미로부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육약은 三臟三腑 足六經의 치료에 활용할 수가 있다. 『黃帝內經』에서 “五臟者는 藏精氣而不瀉也라 故로 滿而不能實也오 六腑者는 傳化物而不藏也라 故로 實而不能滿也라”하였다. 즉 장부의 생리기능에 있어서 오장은 固攝充益하는 것이 補가 되고 六腑는 疏通開泄하는 것이 補가 된다. 따라서 이 육미약물은 사실상 肝·脾·腎 및 膀胱·膽·胃의 三臟三腑를 調補하는 약으로 六經을 모두 補하는 약이 된다.

『絳雪園古方選注·中卷·內科丸方·六味地黃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六味者는 苦酸甘鹹辛淡也라 『陰陽應象論』曰 精不足者는 補之以味라하니 五臟之精은 皆賴腎氣閉藏故로 以地黃으로 名其丸이라 地黃은 味苦入腎하니 固封蟄之本이오 澤瀉는 味鹹入膀胱하야 開氣化之源이니 二者는 補少陰太陽之精也라 萸肉은 味酸入肝하니 補罷極之勞하고 丹皮는 味辛入膽하야 清中正之氣하니 二者는 補厥陰少陽之精也라 山藥은 味甘入脾하야 健消運之機하고 茯苓은 味淡入胃하야 利入出之器하니 二者는 補太陰陽明之精也라 足經道遠故로 制以大하고 足經在下故로 治以偶라 錢仲陽이 以腎氣丸에 裁去桂附하야 治小兒純陽之體하고 始名六味라니 後世以六味加桂하야 名七味하고 再加附子하야 名八味라니 方義味矣라

육미는 고미·산미·감미·함미·산미·담미이다. 음양응상대론에서 이르기를 정이 부족한 자는 오미로써 보한다고 하였으니 오장의 정은 모두 신기가 폐장하는 기능에 의뢰하기 때문에 지황환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숙지황은 미가 고하여 신장으로 들어가니 봉칩하는 근본을 견고하게 하고 택사는 미가 함하여 방광으로 들어가서 기화의 근원을 여니 이 둘은 소음과 태양의 정을 보한다. 산수유는 미가 산하고 간으로 들어가니

1)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47-48.

2) 李瑞 魯兆麟. 六味地黃丸方證及病因病機考釋. 中醫藥學刊. 2003年. 3月. 第 21卷. 第 3期. p.438.

3) 李飛主編. 中國歷代方論精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76-377.

피로함을 보하고 목단피는 미가 신하고 담으로 들어가 증정한 기운을 맑게 하니 이 둘은 쥬음과 소양의 정을 보한다. 산약은 미가 감하여 비로 들어가서 소식하고 운화하는 기능을 건실하게 하고 복령은 미가 담하고 위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가는 작용을 순조롭게 하니 이 둘은 태음과 양명의 정을 보한다. 족경은 길이 멀기 때문에 대방으로 제방했고 족경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방으로 치료한 것이다. 전중양이 신기환에서 제방하여 육계·부자를 제거하여 소아 순양의 체질을 치료하고 비로소 육미환이라 이름 했더니 후세에 육미에 육계를 더하여 칠미환이라하고 다시 부자를 더하여 팔미환이라 하였으니 처방한 뜻이 어둡게 되었다.

『醫方集解·保養之劑第一·六味地黃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⁴⁾.

熟地는 滋陰補腎하고 生血生精하며 山茱萸는 溫肝透風하고 澁精秘氣하며 牡丹은 瀉君相之火火야 涼血退蒸하며 山藥은 清虛熱于肺脾하고 補脾固腎하며 茯苓은 滲脾中濕熱하며 而通腎交心하며 澤瀉는 瀉膀胱水邪하며 而聰耳明目이다 六經備治하며 而功專腎肝하고 寒燥不偏하며 而補兼氣血하니 苟能常服하면 其功未易殫述也

숙지황은 자음하고 보신하며 생혈하고 생정한다. 산수유는 간을 따뜻하게 하고 풍사를 쫓아 내며 정기를 깔갈하게 한다. 목단피는 근화 상화의 잠복된 화를 사해서 피를 차게 하고 증열을 물리치며 산약은 폐비에 있는 허열을 서늘하게 하고 비를 보하고 신을 견고하게 하며 복령은 비중의 습열을 삼설해서 심신을 교통하게 하고 택사는 방광의 수사를 사해서 이목을 총명하게 한다. 육경을 모두 다스리되 공효가 신간에 오로지 작용하고 한성과 조성이 치우치지 않아서 기혈을 함께 보하니 진실로 항상 복용할 수만 있다면 그 공효를 쉽게 다 말할 수가 없다.

配伍의 핵심을 분석해보면 『絳雪園古方選注』는 성미의 각도로부터 육미환이 足六經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다시 설명하면 地黃은 味苦

入腎하고 택사는 味鹹入膀胱하고 黃肉은 味酸入肝하고 牡丹은 味辛入膽하고 山藥은 味甘入脾하고 복령은 味淡入胃한다. 비록 각각의 약이 어떤 것은 滋膩하고 어떤 것은 清熱作用을 하지만 六經으로 들어가서 補益之力을 行하기 때문에 육미환은 육경을 모두 치료하는 처방이 되는 것이다. 『醫方集解』는 여섯 가지 약의 작용으로부터 六藥이 六經을 소통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地黃은 滋腎하고 산수유는 溫肝하고 山藥은 補脾하고 목단피는 瀉君相火하고 茯苓은 滲脾之濕하고 澤瀉는 瀉膀胱水邪하니 六藥은 六經을 通達할 수 있고 또 腎肝을 위주로 하면서 六經을 겸해서 다스리니 補通을 兼施해서 長服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2. 臟腑를 함께 다스린다.

여섯 가지 약의 性·味·色의 특성이 五臟과 대응하는 각도에서 육미환을 분석해 보면 五臟을 兼補하는 처방이 된다. 예를 들어 산수유는 붉은색이며 심장으로 들어가고 산약은 흰색이며 폐장으로 들어가는 것 등이다. 이에 의거해서 六藥이 五臟으로 들어가는 근거를 확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약물의 작용을 가지고 말하면 山藥은 清肺脾虛熱하고 茯苓은 滲脾中濕熱하고 交通心腎하며 牡丹皮는 瀉肝腎相火하니 三藥은 함께 五臟의 熱邪를 차게하고 瀉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足三經의 胃·膀胱·膽의 三腑는 소통하는 것이 順이니 역시 通即是補의 뜻을 取한 것이다. 택사·목단피·복령의 세약은 清瀉하는 성질이 있어 通腑而不留滯하게 하고 또 오장의 열을 淸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臟熱腑寒”하게 하는 효험이 있다.

『吳醫匯講·卷十·六味地黃丸方解』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⁵⁾.

以熟地는 大滋腎陰하니 壯水之主야 以爲君이오 用山萸肉之色赤入心과 味酸入肝者는 從左以納于腎이오 山藥之色白入肺과 味甘入脾者는 從右以納于腎이오 又用三味通腑者는

4) 汪認庵. 醫方集解.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2.

5) 李飛主編. 方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897-898.

恐臍氣不宣 則氣郁生熱^{하야} 以至消燬臟陰^{이라} 故^로 以澤瀉^로 清膀胱而後^에 腎精^이 不爲相火所搖^오 又以丹皮^로 清血分中熱 則主血之心^과 藏血之肝^이 俱不爲火所燬^오 又以茯苓^{으로} 清氣分之熱 則飲食之精^이 由脾輸肺以下降者^가 亦不爲火所燬^오 夫然後四臟之真陰^이 無所耗損^{하야} 得以攝納精液^{하야} 歸入腎臟^{하니} 腎受諸臟之精液而藏之^矣 從來^圖 圖看^過 未識此方之玄妙^가 至于此極^{이나} 今將芟肉 山藥二味^를 分看^{하면} 一入心肝^{하고} 一入肺脾^{하니} 既極分明而氣味又融洽^{이오} 將熟地 芟肉 山藥三味總看^{이면} 既能五臟兼入^{으로} 不致偏倚^오 又能將諸臟之氣^를 盡行納入腎臟^{하야} 以爲統攝臟陰之主而不致兩歧^다 至澤瀉 茯苓 丹皮^를 與三補^로 對看^{하면} 其配合之妙^가 亦與三補同法^{이라} 制方妙義 周備如此^{하니} 非臻于神化者^면 其孰能^之 惟其兼補五臟故^로 久服^{이라} 亦無虞偏勝^{하니} 而爲萬世不易之祖方也^{니라}

숙지황은 신음을 크게 자양하니 수의 주인을 튼튼하게 하여 근약이 되고 산수유의 색깔이 붉어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미가 산하여 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쓴 이유는 왼쪽으로부터 신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산약의 색깔이 희어서 폐로 들어가는 것과 미가 감하여 비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른쪽으로부터 신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또 택사·목단피·복령의 삼미가 부를 소통시키는 작용을 쓴 것은 부기가 선통되지 아니하면 기가 울체되어 열이 생겨서 장의 음을 소삭시키는데 이틀까 두려워한 것이다. 따라서 택사로 방광을 서늘하게 한 뒤에 신경이 상화에 의해 요동하게 되지 않을 것이요 또 목단피로 혈분 속의 열을 서늘하게 하면 혈을 주관하는 심장과 혈을 간직하는 간장이 모두 화에 의해 소삭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복령으로 기분의 열을 서늘하게 하면 음식의 정미가 비장을 통해 폐로 전수되었다가 하강하는 것이 또한 화에 의해 소삭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꺼번에 보면 이 처방의 현묘함이 이 정도에 까지 이른 것을 알지 못할 것이나 이제 산수유·산약의 두약을 나누어 보면 하나는 심간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폐비로 들어가니 아주 분명하면서도 기미가 또 융합하고 숙지황·산수유·산약의 삼미를 가지고 종합해보면 능히 오장으로

함께 들어가면서도 치우치거나 의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능히 모든 장의 기운을 다 신장으로 들어가게 해서 자음을 통섭하는 주인이 되게 하면서도 두 갈래 길이 되지 않게 한다. 택사·복령·목단피를 세 가지 보약인 숙지황·산수유·산약과 대조해 보면 그 배합의 오묘함이 또한 세 가지 보약과 법이 같다. 처방을 만든 오묘한 뜻이 주도면밀함이 이와 같으니 신령스런 경지에 이른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능히 할 수 있으리오. 오직 오장을 함께 보하기 때문에 오래 복용해도 편승해질 염려가 없으니 만세에 바꿀 수 없는 으뜸 처방이 되는 것이다.

『成方切用·卷二上·補養門·六味地黃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⁶⁾.

熟地는 滋陰補腎^{하고} 生血生精^{하며} 山藥은 溫肝逐風^{하고} 澀精秘氣^{하며} 牧丹은 瀉君相之伏火^{하야} 涼血退蒸^{하며} 山藥은 清虛熱于肺脾^{하야} 補脾固腎^{하며} 茯苓은 滲脾中濕熱^{하야} 而通腎交心^{하야} 澤瀉는 瀉膀胱水邪^{하야} 而聰耳明目^{이라}

숙지황은 자음하고 보신하며 생혈하고 생정하며 산수유는 간을 따뜻하게 하고 풍사를 쫓아내며 정기를 깔깔하게 하며 목단피는 군화상화의 잠복된 화를 사해서 피를 차게 하고 증열을 물리치며 산약은 폐비의 허열을 청하게 해서 비장을 보하고 신장을 견고하게 하며 복령은 비중의 습열을 삼설해서 심신을 교통하게하며 택사는 방광의 수사를 사해서 이목을 총명하게 한다.

배오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吳醫濼講』은 숙지황이 入腎하고 산수유가 色赤入心하고 味入肝하며 山藥이 色白入肺하고 味入脾하는 것으로 三藥이 五臟을 함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腎이 先天之本이 되고 藏精하는 성질이 있으며 또한 오장사이의 先克衍化의 관계가 있음을 중시하였다. 동시에 장부의 응용에 대하여 오장을 마땅히 보해야하고 육부는 마땅히 소통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厚味로 滋補할 때 쉽게 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목단피로 血分之熱을 淸하고 택사로 膀胱을 淸하고

6) 吳儀洛, 成方切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1. p.65.

복령으로 氣分之熱을 淸해서 補하되 膩滯하지 않게 하고 滋養하되 生열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논술했다. 즉 補하되 不生熱하고 三腑를 兼通해서 함께 음양·장부·기혈을 협조하게 하는 공효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成方切用』은 택사·복령·목단피의 淸瀉作用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미 분석을 하였는데 이 셋은 淸腑作用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 五臟之虛熱을 淸하니 오장이 熱하게 될 때 육부를 차게 해야 한다(臟熱腑寒)는 이론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이중 산약에 대한 해석이 더욱 독특하게 대부분의 의가들은 산약을 보약으로 귀납하여 脾肺를 補益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곳에서는 도리어 산약이 脾肺의 허열을 서늘하게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오장은 차게 해야 하고 육부는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이론과 딱 들어맞는다.

3. 三補와 三瀉

開闔·動靜·陰陽의 이론에 의거해서 보면 藥性使用上 滋膩한 성질의 약으로 肝·脾·腎 三臟을 補益하였고 또 宣泄하는 약으로 疏導하여 補而不膩하고 滋而不滯하게 하였으니 이른바 후세에서 말하는 三補三瀉의 작용기전이다. 그 뜻은 결코 三藥으로 瀉하기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보하기만 한다는 것도 아니니 補益하면서도 疏導하여 오장의 “滿而不能實”하는 요령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六藥을 三對로 나누면 肝·脾·腎의 삼장에 자리 잡게 되는데 補利가 相對하고 相輔相成한다. 후세에 또 三藥이 淸泄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는데 補益하면서도 瀉邪하여 攻補兼施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방이 玄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설에 동조하는 자들이 아주 많다.

『醫方集解·補養之劑第一·六味地黃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熱地溫而丹皮涼⁸⁾ 山藥澀而茯苓滲⁹⁾ 山茱收而澤瀉瀉¹⁰⁾ 補腎而兼補脾¹¹⁾ 有補而必有瀉¹²⁾ 相和相濟¹³⁾ 以成平補之功¹⁴⁾ 乃平淡之精奇¹⁵⁾ 所以爲古今不易之良方也¹⁶⁾

숙지황은 온하고 목단피는 양하며 산약은 삼하고 복령은 삼설하며 산수유는 수렴하고 택사는 사하니 보신하면서도 겸해서 보비하고 보하면서도 반드시 사하여 서로 조화되고 서로 도와 평보하는 공효를 이루니 평담하면서도 정밀하고 기이하니 고금의 바꿀 수 없는 양방이 되는 이유이다.

『本草備要·草部』澤瀉條에서의 설명도 이와 비슷하다⁸⁾.

六味丸은 有熱地之溫과 丹皮之涼과 山藥之澀과 茯苓之滲과 山茱之收와 澤瀉之瀉와 補腎而兼補脾하고 有補而必有瀉와 相和相濟와 以成平補之功¹⁷⁾ 及平淡之神奇¹⁸⁾ 所以爲古今不易之良方也¹⁹⁾

육미환은 숙지황의 온성과 목단피의 양성과 산약의 삼한 성질과 복령의 삼설작용과 산수유의 수렴작용과 택사의 사하는 작용이 있다. 보신하면서도 겸해서 보비하고 보하면서도 반드시 사하여 서로 조화되고 서로 도와서 평보하는 공효를 이루니 고금의 바꿀 수 없는 양방이 되는 이유이다.

『醫方論·卷一·補養之劑·六味地黃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⁹⁾.

有熱地之膩補腎水는 卽有澤瀉之宣²⁰⁾ 泄腎濁以濟之²¹⁾ 有萸肉之溫澀肝經은 卽有丹皮之淸²²⁾ 瀉肝火以佐之²³⁾ 有山藥收攝脾經은 卽有茯苓之淡²⁴⁾ 滲脾濕以和之²⁵⁾ 藥止六味²⁶⁾ 而大開大闔²⁷⁾ 三陰并治²⁸⁾ 洵補方之正鵠也²⁹⁾

숙지황이 신수를 니체되게 보하는 것은 택사의 신장의 탁기를 선설하는 작용으로 구제해주고 산수유가 간경을 따뜻하게 하고 깔깔하게 하는 것은 목단피의 간화를 차게 하고 사하는 작용으로 도와주고 산약이 비경을 수삼하는 것은 복령의 비습을 담삼하는 작용으로 조화시킨다. 약은 단지 여섯 가지지만 크게 열고 크게 닫으며 삼음을 함께 다스리니 진실로 보하는 처방의 기준이 된다.

7) 汪認庵, 醫方集解,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p.2-3.

8) 汪認庵,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84.

9) 李飛主編, 方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898.

『成方便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故以熟地大補腎臟之精血로爲君^{하되}必以澤瀉의分導腎與膀胱之邪濁로爲佐하고山茱之補肝固精은即以丹皮의能清泄厥陰少陽血分相火者로繼之하고山藥은養脾陰하고茯苓은滲脾濕^{하야}相和相濟하고不燥不寒^{하니}及王道之方也라

그러므로 숙지황의 신장의 정혈을 대보하는 것으로 군약을 삼되 반드시 택사의 신과 방광의 사기와 탁기를 나누어 소도시키는 작용으로 좌약을 삼고 산수유의 보간하고 고정하는 효능은 곧 목단피의 능히 췌음과 소양혈분 상화를 청설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받쳐 주고 산약은 비음을 자양하고 복령은 비음을 삼설하여 서로 조화하고 서로 구제하며 건조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이에 왕도의 처방이 된다.

『古今名醫方論·卷四』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¹⁾.

地黃甘寒之性^은制熱味更厚^{하니}是精不足者補之以味也^니用以大滋腎陰^{하고}填精補髓^{하며}壯水之主^로以澤瀉爲使^니世或惡其瀉腎而去之^니不知一陰一陽者^가天地之道^로一開一闔者^가動靜之機^라精者^는屬癸^니陰水也^로靜而不走^{하니}爲腎之體^로溺者^는屬壬^{하니}陽水也^로動而不居^{하니}爲腎之用^{이라}是以^로腎主五液^{하니}若陰水不守^{하면}則真水不足^{하고}陽水不流^{하면}則邪水逆行^故君地黃以護封蟄之本^{하고}即以澤瀉以疏水道之滯也^라然^니腎虛^에不補其母^{하고}不導其上源^{하면}亦無以固封蟄之用^{이라}山藥은涼補^{하니}以培癸水之上源^{하고}茯苓은淡滲^{하니}以導壬水之上源^{이라}加茱萸之酸溫^{하야}藉以收少陽之火^{하고}以滋厥陰之液^{하며}丹皮^는辛寒^{하니}以清少陰之火^{하고}還以奉少陽之氣也^라滋化源^{하고}奉生氣^{하니}天癸居其所矣^라壯水制火^는特此一端耳^라

지황의 감한한 성질을 품부받은 것은 썬는 과정을 통해 미가 더욱 두터워 지니 이는 정이 부족한 자는 미로써 보하라 하는 것이니 이를 써서 신음을 크게 자양하고 정수를 채우고 보충하며 수의 주인을 튼튼

하게 한다. 택사는 사약이 되니 세상에서 흑간 신장을 사할까 싫어해서 빼나 일음일양이 천지의 도가 되고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히는 것이 동정의 기틀이 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정은 천간의 계에 속하니 음수가 된다. 고요하여 달려가지 않으니 신장의 본체가 되고 소변은 천간의 임에 속하니 양수가 된다. 움직여 머무르지 않으니 신장의 작용이 된다. 따라서 신장이 오액을 주관하니 만약 음수가 지키지 않으면 진수가 부족하게 되고 양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샷된 물이 역행하기 때문에 지황을 군약으로 삼아 봉장하고 칩거하는 근본을 보호하고 택사를 좌약으로 삼아 물길이 막히는 것을 소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장이 허약할 때 그 어미를 보하지 아니하고 그 꼭대기의 근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또한 봉장·칩거의 작용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 산약은 차게 보하니 계수의 위 근원을 복돋우고 복령은 담삼작용이 있으니 임수의 상원을 인도한다. 산수유의 시고 따뜻한 성질을 가하여 이를 통해 소양의 화를 수렴하고 췌음의 액을 자양하며 목단피는 맵고 차니 소음의 화를 서늘하게 하고 또 소양의 기를 만든다. 변화의 근원을 자양하고 생하는 기운을 만드니 천계가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수기를 튼튼히하여 화기를 제압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한 부분일 뿐이다.

『攝生秘剖』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²⁾.

地黃은味厚^{하니}爲陰中之陰^{이니}專主補腎填精故^로以爲君^이也^로山茱萸은酸味歸肝^{하니}乙癸同治之義^며且腎主閉藏^{하니}而酸斂之性^이正與之宜也^로山藥은味甘歸脾^{하야}安水之仇故^로用二味爲臣^{이라}丹皮^는亦入肝^{이니}其用은主宣通^{하니}所以佐茱萸之澀也^로茯苓은亦入脾^{하야}其主通利^{하니}所以佐山藥之滯也^라且色白屬金^{하야}能培肺部^{하고}又有虛則補母之意^라至于澤瀉^{하야}는有三功焉^{하니}一曰利小便^{하야}以清相火^로二曰行地黃之滯^{하고}引諸藥速達腎經^이로三曰有補有瀉^니諸藥이無喜補增氣之虞^라故^로用以爲使^라此丸은爲益腎之聖藥^{이니}而味者^는薄其功緩^{이라}

10) 張秉成編者. 成方便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2.

11) 羅美. 古今名醫方論. 海門.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p.126-127.

12) 李飛主編. 中國歷代方論精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75-376.

속지황은 미가 후하니 음중의 음이 되니 오로지 보신하고 정의 채움을 주장함으로 군약이 된다. 산수유는 산미가 있어 간으로 들어가니 을계 즉 간신을 함께 치료하는 뜻이며 또 신장은 폐장을 주장하니 산미의 수렴하는 성질이 바로 이와 합치된다. 산약은 미가 감하여 비장으로 들어가 수의 원수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써서 신약으로 삼는다. 목단피는 또한 간으로 들어가지만 그 작용은 선통을 주장하니 산수유의 삽한 성질을 보좌하는 것이고 복령도 또한 비장으로 들어가 통리를 주장하니 산약의 막힘을 돕는 것이다. 복령도 또한 비장으로 들어가 통리를 주장하니 산약의 막힘을 돕는 것이다. 또 색갈이 희어서 금에 속하여 능히 폐부를 복돋우고 또 허하면 어미를 보하는 뜻이 있다. 택사는 세 가지 공효가 있는데 첫째는 이소변하여 상화를 서늘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황의 응체되는 작용을 행하게 하고 모든 약을 이끌고 신경으로 속히 도달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보하면서 사하는 작용이 있으니 모든 약이 보를 잘하게 하면서도 기운을 더하는 걱정을 없게 한다. 따라서 이를 써서 사약으로 삼는다. 이환은 신장을 유익하게 하는 성약이니 이 이치에 어두운 사람은 공효가 더디다고 이 처방을 경시한다.

『痰火點雪·卷三·六味丸方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¹³⁾.

古人補藥에 則必兼瀉邪去則補藥得力 하나 一關一闔이 此乃玄妙라 後世不知此理 하나 專一于補 하나 所以久服이면 必致 偏勝之害라 六味之設은 何其神哉라 經有亢則害 承乃制之 論 하나 正此謂也라

옛사람이 보약을 쓸 때 반드시 사기를 사하는 것을 곁했으니 사기가 제거되면 보약이 힘을 얻으니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히는 이것이 현묘한 이치가 된다. 후세 사람은 이 이치를 몰라 오로지 한결같이 보하기만 하였으니 오래복용하면 반드시 편승하는 해가 따라오게 된다. 육미환의 구성은 어찌면 그렇게도 신비한가 내경에 기운이 항성하면 만물을 해치고 계승

하는 기운이 이를 제압한다고 하는 이론이 있으니 바로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馮氏錦囊秘錄·雜症大小合參·卷十一·方脈癆瘵合參·六味地黃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攝生秘剖』의 내용과 유사하다¹⁴⁾.

地黃은 味厚 하나 爲陰中之陰이니 補腎填精 하나 以爲君이요 山茱는 味酸歸肝 하나 乙癸同治之義며 且腎主閉藏 하나 而酸 斂之性이 與之宜也요 山藥은 味甘歸脾 하나 安水之位故로 用爲臣이요 丹皮는 亦入肝이니 其用主宣通 하나 所以佐茱萸之澁也요 茯苓은 亦入脾니 其用主通利 하나 所以佐山藥之滯也라 且色 白屬金 하나 能培肺部라 하고 又有虛則補母之義라 至于澤瀉 하나 有三功焉 하나 一曰利小便以清相火요 二曰行地黃之滯하고 引諸藥速達腎經이요 三曰有補有瀉니 無喜功增氣之虞라 故로 用爲使라

지황은 미가 후하여 음중의 음이 되니 신장을 보하고 정을 채워서 군약이 된다. 산수유는 미가 시어서 간으로 들어가니 을계 즉 간신을 함께 치료하는 뜻이며 또 신장은 폐장을 주장하니 산미의 수렴하는 성질이 이와 합치된다. 산약은 미가 감하여 비장으로 들어가 수의 자리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쓰고 목단피는 또한 간으로 들어가니 그 작용이 선통을 주장하니 산수유의 깔깔한 성질을 보조하고 복령은 또한 비장으로 들어나 통리작용을 주장하니 산약의 막힘을 보좌한다. 또 색갈이 희어서 금에 속하여 능히 폐부를 복돋우고 또 허하면 어미를 보하는 뜻이 있다. 택사는 세 가지 공효가 있으니 첫째는 소변이 잘 나가 도록하여 상화를 서늘하게 하고 둘째는 지황의 체하는 성질을 행하게 하고 모든 약을 이끌고 신경으로 속히 도달하게 하며 셋째는 보도하고 사도하니 공을 잘 이루되 기운을 더하는 근심을 없게 한다. 그러므로 사약으로 쓴다.

配伍의 요령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육미지황환에 대한 인식은 처방중의 補(속지황·산약·산수유) 瀉(택사·복령·목단피)의 對立, 澀(산약·산수유)

13) 龔居中. 痰火點雪. 中國醫學大成(第5冊).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7. p.65.

14) 田思勝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7.

利(복령·택사)의 對立, 寒(목단피·택사) 溫(속지황·산수유)의 對立, 養陰(속지황·산약·산수유) 利濕(복령·택사)의 對立이 있고 이러한 대립인소들이 어떻게 통일된 치료효과를 일으키는 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완전하고 정확하게 본 처방을 인식할 수가 있다. 대립이 약을 선택한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통일작용을 일으키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性味の 작용이 상반되는 약물들을 함께 배오하여 질병에 대한 치료 작용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처방속의 약물들이 질병에 대한 不利한 因素들을 감소시키고 제거하여 둘 사이에서 서로 制約하고 서로 促進하여 통일된 치료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립의 선결조건인데 만약 대립만 있고 통일된 치료효과가 없다면 이는 잡다한 약을 합부로 투여하는 것이니 병을 치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病情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4. 淸金敦土하고 益水平火한다.

腎은 水藏이고 先天之本이 되어 쉽게 虛損이 발생함으로 마땅히 厚한 藥物로 보해야한다. 그러나 肺는 水之上源이 되니 下源이 不利하면 上源도 막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水氣를 더해서 上源을 맑게 해야 한다. 그리고 脾를 보하면 生化之源을 補益하여 腎精이 充滿해질 수가 있다 六味는 益腎을 爲主로 삼으니 腎水가 풍족해 지면 虛火가 滅하게 되고 虛火가 息滅하게 되면 肺金이 淸하게 되고 肺金이 淸하게 되면 肝木의 왕성함을 제압할 수 있고 木氣가 平해지면 土가 저절로 實하게 된다. 이는 즉 肺實而脾自健해지는 뜻이니 실상 육미 지황환이 益水·淸金·敦土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紅爐點雪·卷三』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⁵⁾.

觀方中에 君地黃하고 佐山藥 山茱하며 使以茯苓 牡丹皮 澤瀉者^{전대}則主益水淸金敦土之意^를可知矣^라 蓋地黃一味는 爲補腎之專品也 益水之主味^나孰勝此乎^{리오} 夫所謂益水者는 卽所以淸金也 惟水足則火自平而金自淸^{하니} 有子令母實之義也 所謂淸金者는 卽所以敦土也 惟金氣淸肅 則木有

所畏^{하야} 而土自實^{하니} 有子受母蔭之義也^라 而山藥者는 則補脾之要品^{이니} 以脾氣實則能運化水穀之精微^{하야} 輪轉腎臟 而充精氣故^로 有補土益水之功也 而其山茱 茯苓 丹皮는 皆腎經之藥^{이니} 力助地黃之能^{이라}

처방 중에 속지황을 淸金으로 하고 산약 산수유를 佐藥으로 하며 복령·목단피·택사를 사약으로 한 것을 살펴 보건데 익수 청금 돈토의 뜻을 주장하고 있음을 가히 알 수가 있다. 대개 속지황 일미는 보신하는 전품이면서 수기를 더하는 주된 약이니 어느 것이 이보다 나으리오 대저 이른바 수기를 더한다는 것은 곧 금기를 서늘하게 하는 것이니 수기가 풍족하면 화기가 저절로 고르게 되어 금기가 저절로 서늘해지니 자식이 어미로 하여금 실하게 하는 뜻이 있다. 이른바 금기를 서늘하게 한다는 것은 곧 토기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니 금기가 청숙하게 되면 목기가 두려함이 있어서 토기가 저절로 실하게 되니 자식이 어미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 있다. 산약은 비장을 보하는 중요한 약이니 비장의 기운이 실해지면 능히 수곡의 정미를 운화하여 신장으로 보내 들어가게 하여 정기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보토하고 익수하는 공효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산수유·복령·목단피는 모두 신경의 약이니 힘써 속지황을 돕는 능력이 있다.

配伍의 요령을 분석해보면 장부의 相生·相克·制化 및 臟腑機能으로부터 착수하여 肺金은 腎水之母가 되고 脾土는 또 肺金之母가 되니 六藥이 신장을 滋養하는 것으로 爲主하되 곁해서 그 어미인 肺를 淸하게 하고 다시 健脾해서 化源을 滋養한다는 뜻이 있다.

5. 滋腎利水하고 淸火潤燥한다.

腎은 水藏으로 濕을 좋아하고 燥를 싫어하기 때문에 응당 滋潤하는 약으로 濡養해야 한다. 동시에 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苦辛한 약으로 淸虛熱而防其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水濕의 流溢을 방지해야 하니 甘淡한 약으로 滲泄시켜 수기의 범람을 방지해야 한다. 총괄하면 水는 根本이 됨으로 土를 북돋우어 水臟의 邪氣를 제압하고 泄熱시켜 陰液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의가들은 신의 특성으로부터

15) 龔居中. 痰火點雪. 中國醫學大成(第5冊).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1997. p.65.

착안하여 이른바 여섯 가지 약은 모두 숙지황을 군약과 주약으로 삼고 나머지 다섯 가지 약은 숙지황의 성질과 작용을 강화시키는데 신장은 水에 속하고 그 성질은 喜潤而惡燥하며 또 腎은 水藏이고 水性은 潤下하며 腎은 下焦에 있기 때문에 滋腎補腎하는 약은 마땅히 重味厚品을 써야 함으로 육미는 숙지황으로 군약을 삼았으니 핵심은 補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醫貫·卷之四·先天要論(上)·六味丸說』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⁶⁾.

熟地黃 山茱萸는 味厚者也라 經曰 '味厚爲陰中之陰'이라하니 故로 能滋少陰하고 補腎水라 澤瀉는 味鹹하니 鹹先入腎이라 地黃 山藥 澤瀉는 皆潤物也니 腎惡燥하니 須此潤之라 此方所補之水는 無形之水오 物之潤者도 亦無形故로 用之라 丹皮者는 牧丹之根皮也라 丹者는 南方之火色이오 牡者는 非牡屬陽하고 味苦辛故로 入腎而斂陰火하고 益少陰하며 平虛熱이라 茯苓은 味甘而淡者也라 甘從土化하고 土能防水하며 淡能滲泄故로 用之以制水臟之邪하고 且益脾胃而培萬物之母라 壯水之主와야 以鎮陽光은 卽此藥也라

숙지황·산수유는 미가 후한 것들이다. 내경에 이르기를 미가 후한 것은 음중의 음이 된다하였으니 능히 소음을 자양하고 신수를 보한다. 택사는 미가 함하니 함미는 먼저 신장으로 들어간다. 지황·산약·택사는 모두 축축한 성질이 있으니 신장은 건조함을 싫어하니 모름지기 이것으로 축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처방이 보하는 수는 무형의 수가 되고 물건이 축축한 것도 또한 무형이기 때문에 이를 쓴다. 목단피는 목단의 뿌리껍질이다. 단(丹)이라는 것은 남방의 화색이고 모(牡)라는 것은 암컷이 아닌 양에 속하고 미가 고미·신미이기 때문에 신장으로 들어가서 음화를 수렴하고 소음을 보익하며 허열을 평하게 한다. 복령은 미가 감하고 담한 것이다. 감미는 토를 쫓아 변화하고 토는 능히 수를 막으며 담미는 능히 삼설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써서 수장의 사기를 제압하고 또한 비위를 보익하고 만물의 어머니를 복돋운다. 수의 주인을 튼튼하게 하여 양광을 누르는 것은 곧 이익이다.

『醫方考·卷三·虛損勞瘵門第十八·六味地黃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⁷⁾.

熟地黃 山茱萸는 味厚者也라 經曰 味厚는 爲陰中之陰이라하니 故로 能滋少陰하고 補腎水라 澤瀉는 味甘鹹寒하니 甘從濕化하고 鹹從水化하며 寒從陰化故로 能入水臟而瀉水中之火라 丹皮는 氣寒味苦辛하니 寒能勝熱하고 苦能入血하며 辛能生水故로 能益少陰하고 平虛熱이라 山藥 茯苓은 味甘者也니 甘從土化하고 土能防水故로 用之以制水臟之邪하고 且益脾胃而培萬物之母也라

숙지황·산수유는 미가 후한 것들이다. 내경에 이르기를 미가 후한 것은 음중의 음이 된다하니 따라서 능히 소음을 자양하고 신수를 보한다. 택사는 미가 감하고 찬 성질이 있으니 감미는 습을 따라 변화하고 함미는 수를 따라 변화하며 찬 성질은 음을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능히 수장으로 들어가서 수중지화를 사한다. 목단피의 기는 한하고 미는 고신하니 한기는 능히 열을 이기고 고미는 능히 혈로 들어가며 신미는 능히 수기를 생하기 때문에 능히 소음을 보익하고 허열을 평한다. 산약·복령은 미가 감하니 감미는 토를 쫓아 변화하고 토는 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써서 수장의 사기를 제압하고 또 비위를 보익하고 만물의 어머니를 복돋운다.

『醫方考·卷二·咳嗽門第十七·六味地黃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⁸⁾.

熟地黃 山茱萸는 味厚者也니 味厚爲陰中之陰故로 能滋腎이라 腎者는 水臟이니 虛則水邪歸之故로 用山藥 茯苓以利水邪하고 水邪歸之則生濕熱故로 用澤瀉 丹皮以導坎中之熱이라 滋其陰血하고 去其熱邪 則精日生而腎不虛라

숙지황·산수유는 미가 후한 것들이니 미가 후한 것은 음중의 음이 된다. 따라서 능히 신장을 보익할 수 있다. 신은 수장이니 허하면 수사가 모여들기 때문에 산약·복령을 써서 수사를 빼내고 수사가 모여들면 습열이 생겨나기 때문에 택사와 목단피를 써서 감중의 열을 이끌어 낸다. 음혈을 자양하고 열사를 제거하면 정이

16)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5.

17) 吳昆. 醫方考. 南通.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154.

18) 吳昆. 醫方考. 南通.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135.

매일 생겨서 신이 허하지 않게 된다.

『四明心法(中)·方論·六味丸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⁹⁾.

此는 純陰重味潤下之方也라 純陰은 腎之氣로 重味는 腎之質이오 潤下는 腎之性이니 非此면 不能使水歸其壑이라 其中只熟地一味는 爲本臟之主나 然이니 遇氣藥則運用于上하고 遇血藥則流走于經와야 不能制其一線入腎也라 故로 以五者佐之라 山藥은 陰金也니 坎中之良이 堅凝生金故로 入手太陰하야 能潤皮膚라 水發高原하니 導水는 必自山이라 山藥은 堅少腹之土와 眞水之原也라. 水土一氣니 鎮達臍下라 山茱萸는 陰木也라 肝腎은 同位乎下하니 借其酸澁하야 以斂泛溢이라 水火升降은 必由金木爲道路故로 與山藥으로 爲左右降下之主하야 以制其旁軼이라 二者는 不相離니 觀李朱拆用二味于他方전대 可悟也라 丹皮는 本手足少陰之藥이니 能降心火하야 達于膀胱이라 水火는 對居하니 瀉南即益北이라 而又有茯苓之淡泄以降陽이오 澤瀉之鹹泄以降陰하야 疏滲決排하야 使無不就下入海之水하니 此制方之微旨也라

이것은 순음의 처방이고 중미지방이고 윤하하는 처방이다. 순음은 신장의 기운이고 무거운 약제는 신장의 본질이고 윤하하는 것은 신장의 본성이니 이것이 아니면 능히 물을 골짜기로 빠져나가게 할 수 없다. 이중 숙지황 본장이 허약할 때 쓰는 주제이나 기약을 만나면 위에서 운용하고 혈약을 만나면 경맥에 유주해서 한길로 신장으로만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다섯 가지로 돕는 것이다. 산약은 음금이니 감중의 간토가 굳게 멩쳐서 금을 생하기 때문에 수태음으로 들어가서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물은 높은 언덕에서 발생하니 물을 인도하는 것은 반드시 산으로 부터 해야 한다. 산약은 아랫배의 토와 진수의 근원을 견고하게 한다. 수토는 한 기운이니 배꼽 아래로 눌러서 이르게 한다. 산수유는 음목이다. 간과 신은 함께 아래에 위치하니 산삼한 성질을 빌려서 범람하는 것을 수렴한다. 수화가 승강하는 것은 반드시 금이 도로가 됨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산약과 함께 좌우에서 내려가게 하는 주인이 되어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압한다. 이 둘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동원 주

단계가 두약을 다른 처방에 분리해서 쓴 것을 보던데 가히 알 수가 있다. 목단피는 본래 수족소음의 약이니 능히 심화를 내려서 방광에 이르게 한다. 수화는 마주보고 있으니 심장의 화를 사하는 것이 바로 신장의 수를 보익하는 것이다. 또 복령의 담설하는 작용으로 양기를 내리고 택사의 함미는 배설하여 음기를 내리니 소통하고 물길을 티워 밀어내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게 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것이 처방을 지은 깊은 뜻이다.

약물 配伍의 요령을 분석해보면 모든 의가들이 장부의 특성으로 立論하여 육미지황환은 사실상 오로지 신장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숙지황의 純陰·重味·潤下하는 성질로 신장의 성질에 배합시켰고 다시 기타의 五味를 배합하여 함께 重味·潤下의 효과를 달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산수유의 酸澁한 성질로 범람하는 것을 수렴하여 함께 자음하는 功效를 달성하였고 산약의 潤性으로 금을 생하여 腎水之母를 보익하고 水之上源이 잘 소통되도록 하였으며 목단피는 심신에 들어가 水火既濟를 이루도록하고 복령은 淡泄降陽해서 中土를 調和하며 토가 능히 수를 제압하도록 하였고 택사는 淸熱存陰하게 하였다. 이 다섯 가지는 木·土·金·水의 각 방면에서 함께 滋腎하고 淸熱하며 堅陰하고 潤燥하며 泄火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6. 降火升水하는 작용이 있는데 火氣를 내려 水氣를 상승시킨다.

陰陽 및 氣機升降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陰虛한 자는 흔히 氣가 상승하여 내려오지 않고 陽虛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氣陷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六味는 升降의 기틀을 조화하는 작용이 있다. 숙지황 등의 味厚体重한 것은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 다시 택사 등으로 보좌하여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 작용을 강화시킨다. 氣機의 左升右降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산약은 肺金之氣를 강하시키고 산수유는 肝木之氣를 상승시켜 升降이 調和된 상태를 이루게 한다. 다시 택사·복령을 가지고 陰中之陰陽을 沈降시켜서 陰이 降下해서 虛火가 저절로 淸해지도록 한다.

19) 高鼓峰. 四明心法. 서울. 醫聖堂. 1994. pp.60-61.

『醫編·卷之六·諸方(上)·諸方門目(上)·虛損·六味地黃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熱地는 滋腎君藥이나 然이나 遇氣藥則運用于上하고 遇血藥則流行于經하야 不能制其一線入腎也라 故로 以五者佐之라 山藥은 陰金也니(質重屬陰하고 色白屬金也라) 能助肺氣之下降하고 山茱萸는 陰木也니(酸屬木하고 潤屬陰也라) 能斂肝氣之迅升이라 水火升降은 必由金木爲道路니 二者는 爲左右降下之主하야 以制其旁軼이라 且補其母而水出高原하고 補其子(茱萸는 補肝血也라) 而不盜母氣라 又用丹皮하야 瀉南以補北하고 降火以滋이라 茯苓之淡泄는 以降陰中之陽(腎中之邪는 火也라 水虛者는 火必上炎이라 茯苓은 藏伏地中하야 爲日最久니 沈陰을 可知라 故로 能降上炎之陰火하야 用茯苓은 正取其淡泄이라 味者反以剋制之하야 可笑라) 澤瀉之鹹泄는 以降陰中之陰이라 (膀胱中渾濁之水液也라 腎熱則水液渾濁하야 瀉其腑는 正所以安其臟也라 補腎水는 乃滋其潤澤之氣니 無形之癸水也라 若有形之壬水는 須流行不蓄하야 否則泛溢爲災오 卽不渾濁이라도 亦須導之라 或疑澤瀉泄腎은 味矣라) 五者는 色色皆降하야 共挽地黃下趨하야 所謂治下制以急也라(得力이 尤在苓瀉二味니 常常下泄 則群藥이 爲其所導라 味者가 嫌其滲泄而去之하고 加入補腎群品하야 久服氣積하야 下泄無路하야 勢必上湧矣라 故로 曰 六味之苓瀉는 補中之升藥니 流濕就燥하야 分道揚鑣하야 皆必不可去者也라 補中은 升也니 清升則濁降故로 謂補中은 以升爲降하고 六味는 降也니 火降則水上升故로 謂六味는 以降爲升이라 水何以升고 水足則上潤也니라

숙지황은 신장을 자양하는 군약이 되지만 기약을 만나면 위에서 운용하고 혈약을 만나면 경맥에 유행해서 능히 한길로 신장으로부터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다섯 가지로 돕는 것이다. 산약은 음금에 속하니(질량이 무거운 것은 음에 속하고 색깔이 흰 것은 금에 속한다) 능히 폐가 하강하도록 도와주고 산수유는 음목에 속하니(산미는 목에 속하고 축축한 것은 음에 속한다) 능히 간기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수렴시킨다. 수화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금목이 도로가 됨으로 말미암으니 이 둘은 좌우에서 내려오게 하는 주인이 되어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

도록 억제한다. 또한 그 어미를 보하면 물이 높은 언덕에서 나오게 되고 그 자식을 보하면(산수유는 간혈을 보한다) 어미의 기운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 또 목단피를 써서 심기를 사하고 신기를 보하며 화기를 내리고 음기를 자양한다. 복령의 담설하는 작용은 음중의 양을 내리고 (신중의 사기는 화이다. 수기가 허한 자는 화가 반드시 상렴하게 된다. 복령은 땅 속에 저장 잠복해서 날짜가 아주 오래된 것이니 침음작용이 있음을 가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로 타오르는 음화를 하강시키니 복령을 쓰는 것은 바로 담설하는 작용을 취한 것이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도리어 젖으로 법제를 하니 웃기는 이야기이다) 택사의 함설 작용은 음중의 음을 내린다.(방광속의 혼탁한 수액이다. 신장이 열하면 수액이 혼탁해지니 그 부를 사하는 것은 바로 그 장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신수를 보하는 것은 윤택한 기운을 자양하는 것이니 무형의 계수이다. 유형의 입수는 모름지기 흘러 행하게 해서 쌓이지 않게 해야 되니 그렇지 않으면 흘러 넘쳐서 재앙이 된다. 비록 혼탁하지 않더라도 또한 반드시 빼내야 한다. 혹자가 택사가 신장의 기운을 설한다고 의심하는데 이치에 어두운 것이다) 다섯 가지는 모두 내려가서 함께 지황을 끌고서 내려가니 이른바 아래를 치료할 때 급방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다.(힘을 얻는 것이 더욱 복령 택사의 두약에 있으니 항상 하설하면 나머지 약들이 그것에 의해 인도된다. 이를 모르는 자는 삼설작용을 의심해서 빼고 보신하는 여러 약들을 더 넣으니 오래 복용하면 기운이 쌓여 아래로 빠져나가는데 통로가 없게 되어 형세가 반드시 위로 솟구치게 된다. 그러므로 육미의 복령·택사는 보중익기탕의 승마·시호와 같으니 습한 곳으로 흐르고 건조한 곳으로 나아가 길을 나누어 힘차게 나아가게 하니 모두 반드시 빼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보중익기탕은 승기시키는 작용을 하나 청기가 올라가면 탁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중익기탕은 승기작용을 하게 해서 내리는 작용을 하게하고 육미지황환은 강기시키는 작용을 하나 화기가 내려오면 수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육미지황환은 내리는 것을 위주로 하여 승기를 시키다. 수기는 어떻게 올라가는가 수기가 충족하면 위가 축축해지는 것이다.)

20) 何夢瑤, 醫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401.

『醫學讀書記·卷下·補中益氣湯六味地黃湯方合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²¹⁾.

陽虛者氣多陷而不舉故補中益氣는 多用參 芪 朮 芎 藭 甘溫益氣하고 而以升柴辛平으로 助以上升하며 陰虛者氣每上而不下故六味地黃丸은 多用熟地 萸肉 山藥하니 味厚體重者는 補陰益精하고 而以茯苓澤瀉之甘淡으로 助之下降이라 氣陷者는 多滯하니 陳皮之辛은 所以和滯氣로 氣浮者는 多熱하니 牡丹之寒은 所以清浮熱이라 然六味之有苓 澤은 猶補中之有升 柴也로 補中之有陳皮는 猶六味之有丹皮也로 其參 芪 歸 朮 甘草은 猶地黃 萸 肉 山藥也라 法雖不同而理可通也니라

양허한 자는 기가 대부분 함하여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중익기탕은 인삼·황기·백출·감초를 많이 쓰니 감미와 온성으로 익기시키고 승마·시호의 신평한 성질로 상승하는 것을 도와준다. 음허한자는 기가 매양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육미지황환은 숙지황·산수유·산약을 많이 쓰니 미가 후하고 중량이 무거운 것으로 보임하고 익정하며 복령·택사의 감담한 성질로 하강작용을 돕는다. 기함한 사람은 자주 막히기 때문에 진피의 신미는 체기를 조화하는 방법이고 기부한 사람은 열이 많으니 목단피의 찬성질은 떠 있는 열을 서늘하게 한다. 그러므로 육미지황환에 복령·택사가 있는 것은 보중익기탕에 승마·시호가 있는 것과 같고 보중익기탕에 진피가 있는 것은 육미지황탕에 목단피가 있는 것과 같고 인삼·황기·당귀·백출·감초는 숙지황·산수유·산약과 같다. 법은 비록 다르지만 이치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配伍의 요령을 분석해 보면 六味の 약성중 여러 약이 味厚沈降하는 것은 腎의 성질에 응하는 것이고 五藥은 함께 숙지황을 도와서 降下하여 補陰滋腎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나 氣의 升降은 升이 있으면 반드시 降이 있으니 육미의 효과는 바로 陰氣를 降下시켜 陽氣가 반드시 上升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陰水가 풍족해지면 虛火가 반드시 서늘해지고 虛火가 내려오면 腎水가 저절로 올라가니 이른바 하강하는 가운데 상승함이 있고 보하는 가운데

淸火作用이 있는 것이다. 하강작용을 하는 택사 복령은 바로 모든 약을 이끌고 내려가 신장에 도달하게 하니 흡사 보중익기탕에서 승마·시호가 모든 약을 이끌고 곧장 病所에 도달하게 하는 오묘한 작용과 같은 것이다.

III. 結 論

六味地黃丸의 制方原則 및 配伍原理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六味地黃丸은 肝·脾·腎의 三臟과 膀胱·膽·胃의 三腑를 調補하여 足六經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데 熟地黃이 味苦入腎하고 澤瀉가 味鹹入膀胱하고 山茱萸가 味酸入肝하고 牡丹皮가 味辛入膽하며 山藥이 味甘入脾하고 茯苓이 味淡入胃하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2. 六味地黃丸은 五臟과 六腑를 모두 다스리는데 熟地黃이 入腎하고 山茱萸가 入心肝하고 山藥이 入肺脾하며 澤瀉가 瀉膀胱水邪하고 牡丹皮가 淸血分之熱하고 茯苓이 靑氣爲分熱 하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3. 六味地黃丸은 熟地黃·山藥·山茱萸의 三味는 補하고 澤瀉·牡丹皮·茯苓의 三味는 瀉하여 三補三瀉의 대립이 함께하며 處方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六味丸에는 이외에도 山藥·山茱萸의 澀한 성질과 利尿作用을 하는 茯苓·澤瀉의 澀利의 對立, 牡丹皮·澤瀉의 寒性和 熟地黃·山茱萸의 溫性的 寒溫의 對立 등도 있다.
4. 六味地黃丸에는 淸金敦土하고 益水平火하는 功效가 있다. 熟地黃은 補腎益水하는 主劑이고 山茱萸·茯苓·牡丹皮는 熟地黃의 作用을 도와준다. 益水하여 水氣가 넉넉해지면 金自淸하게되고 金淸하게 되면 木이 두려워하여 土自實하게 된다. 특히 山藥은 補脾하는 藥으로 脾氣가 實해지면 水穀精微之氣를 運化하여 腎臟의 精氣를 充實하게 하니 補土 곧 또한 益水의 功效를 發揮하게 한다.

21)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346-347.

5. 六味地黃丸은 壯水之主하여 以鎮陽光하는 功效가 있다. 味厚한 熟地黃·山茱萸로 滋腎하고 鹹寒한 澤瀉로 瀉水中之火하며 또 이 三味는 모두 潤劑로 潤腎한다. 牡丹皮는 益少陰平虛熱하고 山藥 茯苓은 制水臟之邪하고 補益脾胃하니 六味丸은 滋腎利水하고 清火潤燥하는 특징이 있다.
6. 六味地黃丸의 君藥인 熟地黃과 臣藥인 山茱萸 山藥은 味厚體豐重하여 下降作用을 하여 補陰 益精한다. 牡丹皮는 降火滋陰하고 茯苓의 淡泄은 降陰中之陽하고 澤瀉의 鹹泄은 降陰中之陰하여 六味 모두는 降火의 作用이 있는데 火降하면 水上升하게 되어 六味丸은 降火升水의 效능이 있다.
13. 田思勝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7.
14.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1994. pp.47-48.
15.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5.
16. 何夢瑤. 醫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401.

參考文獻

1. 高鼓峰. 四明心法. 서울. 醫聖堂. 1994. pp.60-61.
2. 龔居中. 痰火點雪. 中國醫學大成(第5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5.
3. 羅美. 古今名醫方論. 海門.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p.126-127.
4.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346-347.
5. 吳昆. 醫方考. 南通.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135, 154.
6. 吳儀洛. 成方切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1. p.65.
7. 汪認庵.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84.
8. 汪認庵. 醫方集解.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p.2-3
9. 李飛主編. 方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898.
10. 李飛主編. 中國歷代方論精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75-376, 376-337, 897-898.
11. 李瑞 魯兆麟. 六味地黃丸方證及病因病機考釋. 中醫藥學刊. 2003. p.438.
12. 張秉成編著. 成方便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2

